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09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4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유정주 · 오영환
한병도 · 신동근 · 장철민
이상헌 · 고용진 · 김윤희
이성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.

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·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.

또한 복제·배포·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·배포·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음.

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·영상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, 복제·배포·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

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및 제33조의2).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을 “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로, “어문저작물”을 “어문저작물, 연극저작물 및 영상저작물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2항 중 “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”을 “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 ① (생 략) | 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<u>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<u>어문저작물</u>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.</u> | ②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어문저작물,</u> <u>연극저작물 및 영상저작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 ① (생 략) | 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<u>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</u> | ②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|

